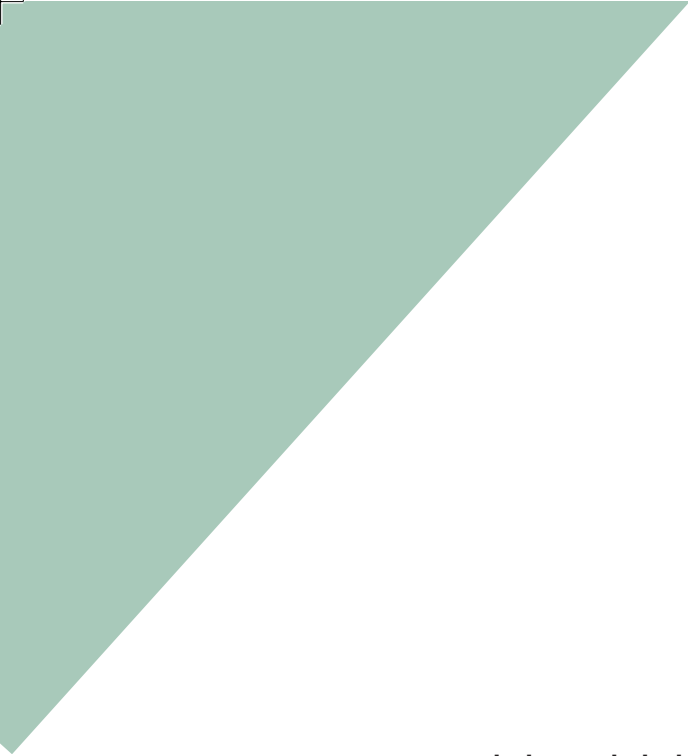


2022

배움 Festival

드리미학교 4기 이지혜
신앙과 배움, 삶과 공동체를 빛다.

Dreamy School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7:7-8]

JIHYE WITH SCHOOL DREAMY



1단계

드리미학교에 온 지 어느덧 두달이 되었다.
하루하루 변화되는 나를 느끼며 신기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했던 두달이었던다. 신앙적으로도 외면,
내면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모태신앙이지만
믿음이 없는 나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왜
죄인인지 알아가는 시간을 보냈다. 또한 진정한
공동체를 느끼고 경험해가고 있다. 드리미학교라는
아예 새로운 문화를 접하며 이질감도 들고 나를
긍정시키기도 부정시키기도 했던 두 달.
그 두 달동안 배운 나의 빛음들을 담아본 책자이다.

ABOUT ME

LEE JI HYE

Block_내가 듣는 수업

그리스도인의 스포츠

홀리워크

가치기초소양

2단계

1단계 끝난게 엇그제 같은데 2단계를 마치는 막바지에 있다. 드리미학교의 큰 행사 중 하나인 3P 페스티벌도 다음주로 코앞이다. 드리미학교에서의 첫 학기를 마치며 돌아보니 뿌듯한 마음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아쉬움도 남는다. 다음학기를 나의 성장과 발전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해본다.

C O N T E N T S

01 빛음

사명선언문
신앙에세이
언어빛음
타임엔지니어링
공동 성결서약문
빛음 2단계

02 가치기초소양

정의 에세이
성결 에세이
평화 에세이
절제하는 삶의 법칙

03 3P 기초소양

3P창의활동 계획서
지역 연구 인물 인터뷰
문제해결 프로젝트
미리쓰는 '나는 배웠다'

01 빛음

드리미인으로서의 경건한 삶, 신앙적인 삶을 다짐하는 배움, 드리미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되새기며 하나님 나라의 교육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빛음.

사명선언문 이지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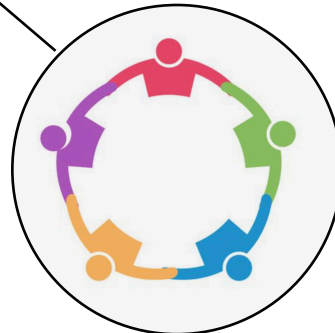
정성이 느껴지는 빵,
한번쯤 다시 생각나게
하는 그런 빵을 만들
어 먹는 사람, 선물로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모두가 행복과 감사를
느끼게 한다.
_먹는 다는 것 이상의
가치를 주는 제빵사



한 가정의 아내, 엄마,
동역자로서 책임감과
희생정신을 가지고 내
가정에 소중함과 가정
의 일상이 당연한 것
이 아닌 감사한 것임
을 잊지 않는다.
_항상 발전하는 아내,
부모로서



동물과 교감하며 사랑
과 책임감, 동물들의
내면과 감정을 섬세하
게 느끼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귀한 생명을
돌본다.
_생명을 돌보는 사람



절제하는 법과 감사할
수 있는 내면을 가져
겸손함이라는 키워드
와 보다 가까운 사람
으로 성장한다. 이러
한 행동의 지혜를 통
해 사랑이 가득한 공
동체를 형성한다.
_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죄인임을 잊지
않고 항상 감사와 절제
를 가지고 살아간다.**

Action Plan 이지혜

- 글로벌 시대로써 개인의 경쟁력을 위해 영어 실력을 향상시킨다.
- 체력을 기른다.
- 좋은 재료를 사용하며 부모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빵을 만든다.
- 보기 좋은것이 먹기에도 좋기 때문에 하나하나 정성을 담아 굽는다.
- 제빵 이론책을 통해 깊이 있는 지식을 얻고, 실습을 통해 경험을 쌓는다.

- 사랑과 가정에 대한 희생과 책임이란 무엇인지 한달에 한번씩 짧은 글을 써보며 발전과정을 기록한다.
- 가벼운 연애보다 성숙하고 진지하며 책임감 있는 연애를 추구한다.
- 가정이라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써 절제와 오래참음을 잊지 않기 위한 기본으로 언어에 대한 기본을 지킨다.

- 외면적으로만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아닌 나의 내면도 채우기 위해 매일 감사한 것 3가지를 적어본다.
- 비전 구체화를 위해 미래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매일 한문장씩 적어본다.
- 잠언 묵상을 해본다.
- 내가 잘 하고 있는지 자아성찰 하는 시간을 매주 일요일마다 가져본다.

- 동물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 동물 관련 미디어 및 책 읽기
- 기초 수의학 공부
- 유기동물보호소 봉사를 통해 경험 쌓기
- 내가 먼저 단단한 정신 건강을 가지기 위해 몸과 마음을 단련시킨다.

- 경청하는 법과 건강한 비판적 사고력을 키운다.
- 말을 하기 전 한번 더 생각하고 내뱉는다.
-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옳은 행동이며 남들이 다 한다고 똑같이 하고 있던 행동들이 잘못된 행동이 아니었는지 통찰해본다.
- 행동할 때 행동하는 사람이 된다,
- 남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에세이 책과 성경묵상을 하며 지혜를 얻는다.

신앙 에세이

나는 신앙에세이를 쓰라는 말을 듣자마자 가장 먼저 쓰고싶었던 건 고멜과 호세야 이야기였다. 김선교 선교사님의 복음사경회 시간에 접하게 된 이 이야기는 듣다보면 반전이 있다. 처음에 나는 이야기를 들으며 호세야를 안타까워하며 고멜을 이해하지 못하고 미워했다. 하지만 여기서 고멜은 하나님 앞에서 나왔다. 나는 이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좀 받았지만 내가 왜 이런 고멜같이 바보같은 죄인인가 생각해보았다.

하나님은 대가없이 우리에게 이 모든것을 주셨다.

‘대가없이’ 사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너무나 당연한 기본 패시브가 되어버린 것 같다. 나는 그저 기도하며 지혜를 달라 하고 절제를 달라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한다. 너무나 당연하게.. 나는 아직 거둬나지도 못한 죄인인데.. 그래도 난 당당하다. 내가 죄인인걸 알고 하나님의 도움없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도 알기 때문이다. 이것이 대가이다. 수지타산은 전혀 맞지 않는.. 그래서 진짜 내가 죄인인가, 의문과 공감이 동시에 든다. 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 공감한다. 하나님의 실존을 믿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믿고 있는 사람으로써 나는 그 행동에 책임지고 있지 못하는 죄인이다. 근데 의문도 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있고 계획했다 하는데 왜 이런 죄인들을 만든 것일까. 에덴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 먹을 것이라는 것을 물랐을까 아니면 그것 또한 계획이었을까. 나는 어디까지가 계획이고 뜻인지 가늠할 수 없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존재이며 나를 만드신 존재이시기 때문에 감히 이해할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책이라는 답지를 주셨다. 앞으로 나는 이 성경에서 나의 사명과 방향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있을까?

한번도 깊게 생각한 적 없는 주제였다. 하나님이 정말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의 주인으로써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있는 걸까? 나는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것을 믿지만 이 수많은 사람들 중 나도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인것이 과연 진짜 특별한 것인지는 모르겠다. 나만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닌 모든 사람들을 위해 못 박히셨다는것이 매우 은혜롭고 감사하지만 특별함으로 다가오지는 않는다. 나에게 있어 특별함이라는 키워드는 고유성, 희소성, 차별됨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과 관계를 발전시키고 사랑하는 방식으로 드리미학교에 온 것, 우연이 아닌 감사했던 일 등으로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고 고유하게 인지했다. 하지만 이걸 결코 건강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다. 나에게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과 이것을 변화시키는 과정 또한 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다 생각한다.

또한 나에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난 하나님과 관계가 깊고 간증을 나누며 기쁘게 찬양을 따라부르지도 않는 단계에 있다. 드리미학교에 오기 전 한번도 하나님에게 진심으로 다가가 본 적도 그렇게 하려 한 적도 없다. 그냥 기도하라하면 눈 감고 있고 찬양하라 하면 앉아있었다. 간증을 진심으로 해본적도 없고 내가 죄인인가 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생각해본적도 없던 것 같다. 물론 감사한 일이 생겼을 때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으로 생각하며 감사를 하나님과 나누는 순간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이것이 거의 전부이다.

“

지금까지 나는 나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것이 목표이고 건강한 삶이라 생각했는데 학교에 입학하여 신앙수업과 여러 강연을 들어보니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래야 비로소 죄인인 내가 온전해진다는 말을 하고 있다. 신앙에 대해 배워가면서 점점 긍정과 공감을 하게 되는 것 같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물질의 만족은 순간적이라는 것은 내가 인생을 살아오며 경험한 크고 작은 일들로 어느정도 공감할 수 있다. 익숙해 지는 것은 한 순간이고 그 다음에 소중함을 잃기 시작한다면 행복과 만족을 선사받기는 점점 힘들어진다. 이것은 하나님의 설계인 것 같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며 마음에 평화와 안정이 찾아오는, 하나님이 나의 죄와 책임을 가져가 주시는 순간을 기대하고 갈망한다.

그렇다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믿음은 있지만 여전히 모든 것은 나에게 맞춰져 있고 세상적인 가치기준과 성공이 더 크게 와닿는다.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믿지만 관계를 쌓아 나간건 아니었다.

나는 이제서야 하나님을 알아가고 궁금해하고 있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의문들을 쉽게 지나치지 않고 파고 들어가보며 신뢰와 관계를 쌓아나가보려 한다. 당장은 신앙에세이 쓰는 것도 힘들고 형식적인 생각과 말이 자꾸만 나오며 정해진 정답을 쓰려 하고 있는 걸 느낀다. 그래도 이 순간순간이 다 과정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천천히 나아가려 한다.

언어 빛음

언어빛음 수업을 들을 때 한국소설을 예로 든 부분이 있었는데 한글이 얼마나 감각적이며 섬세한 언어인지 알 수 있었다. 자랑스러운 한국어는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들 중에서 만든 사람과 만들어진 연도가 명확한 몇 안 되는 언어이기도 하며 전 세계에서 한글은 배워두기만 하면 여러 가지 단어를 조합할 수 있고 모든 발음을 정확하게 쓸 수 있는 우수성이 많은 문자이기 때문에 전문가 및 세계의 언어 관련 기관에서는 한글을 가장 우수한 언어로 뽑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의 문맹률 또한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또한 세계 언어 중 높임법이 가장 발달한 언어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공부하려 한다면 굉장히 까다롭고 오랜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노란색을 예로 들 때 누르스름하다, 노랗다 등 다양하게 노란색을 표현한 단어들이 영어로는 그냥 yellow라는 점을 보면 심화적인 언어라는 것을 또 한번 알 수 있다. 단어의 선택 폭이 넓은 만큼 같은 의미가 담긴 문장이라도 느낌이 확연하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평소에 아무렇지 않게 혹은 재미를 위해 던졌던 질 낮은 농담들을 돌이켜 보며 내 언어생활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언어빛음 수업을 들은지 이 글을 쓰는 기점으로 한 달 하고 일주일 정도가 지났는데 그 사이 내 언어에 대해 끊임없는 점점을 할 수 있었다. 언어생활을 고치는 것은 단순히 개념을 채기는 차원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방법 그리고 타인에게 존중과 사랑을 베푸는 방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을 배우고 간다. 또한 죄 이전의 언어와 죄 이후의 언어가 달라진 차이를 보며 죄가 우리에게 끼친 많은 영향들중 하나를 알아가는 수업이었다. 앞으로도 언어빛음은 계속 될 것이다.

How to

말하기 전에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고 말하기
언어가 가진 무게를 항상 자각하기
성경 읽기
긍정적인 생각 많이 하기
칭찬 많이 하기

타임엔지니어링!

-
-
-
-

"시간은 곧 사건의 연속이다."

나는 타임엔지니어링 수업을 들으며 내가 왜 비전을 잡아야 하는지 이유와 방법에 대해 알게 되었다.

먼저 시간관리는 곧 사건관리이기 때문에 선택성이 존재한다. 이 성질을 잘 활용하기 위해 우리는 미래를 끊임없이 구체화 시켜야 한다.

“시간 초월성”

영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생각을 통해 미래의 사건에 관여할 수 있다. 이 시간 초월성을 통해 시간 압축성과 복제성을 사용 할 수 있는데 압축성은 계획성과 실행력을 잘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복제성은 실현력과 효율을 준다. 과거의 후회에 매여있지 말고 끊임없이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것이 하나의 목표 가치이며 끊임없는 비전 구체화를 통해 생각의 근육을 키우는 것이 탁월해 지는 방법이다.

“비전 정하기”

우리의 비전 과정 즉 사건을 선택하는 기준을 하나님으로 두어야 한다. 남을 섬기는 법을 알아야 한다.

현재를 매사에 열정적으로 살며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끊임없이 생각과 의문을 달고 살자. 단순히 내가 목표를 정해 달려가는 것이 아닌 달려가는 동안 끊임없이 목표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가치있는 삶을 살아가는 방식일 것 같다.

2022 트리미학교 성결서약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대를 본 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고자,
이 성결서약식에 참여 합니다.
우리는 ‘내가 기록하니 너희도 기록하라(레 11:45)’ 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이루어가는 존재로서 성적으
로 성결한 삶을 살아가고자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되었고, 구원받은 존재로서 나의 영혼과 몸,
성에 대해 성경적인 가치와 태도를 가지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둘,
나와 더불어 타인 또한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귀한 존재임을 믿고 불건전
한 성적 농담을 하는 등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말과 행동을 하
지 않을 것입니다.

셋,
사람의 영혼과 육체는 연결되어 있음을 알고 이성 간의 육체적 접촉을 절제
하여 결혼하기 전까지 서로의 몸과 마음을 지켜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넷,
성은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사람과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임을 받아들이고 한
순간의 감정과 호기심에 의해 성적 관계를 맺지 않을 것입니다.

다섯,
나와 타인은 누군가의 배우자이자 부모가 될 수 있는 존재임을 알고 성적인
관계로 이어질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만들지 않을 것이며, 그러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성이 왜곡되어 표현된 포르노 영상이나 도서, 웹툰 등의 음란한 매체를 보지
않을 것이며 만들거나, 유포, 공유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곱,
성매매나, 유사 성매매, 성폭력 등의 성적 범죄에 조금이라도 가담하지 않으
며 성을 파는 일과 사는 일도 절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덟,
결혼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배우자와만 성관계를 맺을 것이며 배
우자를 깊이 사랑하여 상호 간의 대화와 합의로 이루어진 성적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아홉,
성에 대한 지나친 집착으로 자신의 몸과 삶이 망가지지 않도록 절제하고 균
형있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드

열,
성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고, 결혼이라고 하는 안전하고도 성경적인
제도를 신성히 여기고 책임 있는 태도를 가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다짐하는 바이며, 하나님과 부모님, 선생님들과 동료들 앞
에서 엄숙하게 서약합니다.

2022년 5월 4일 트리미학교 4기생 이지혜

| 빛을 2단계 소감문

한 학기 동안 배운 내용을 돌아보고 나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글을 써보자.
(그림으로 나를 알기, 칭찬사전, 건강한 자아상, 성격적 자아, TNTQ, 성장과 배움 등)

Q. 나는 어떤 사람인가

A. 나는 엇나가도 바로 잡을 멘탈과 힘이 있는 사람이다.
집중이나 몰두가 잘 안되는데 이걸 마음가짐에 따라 항상 다른 것 같아, 마음가짐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조금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써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는데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다.
아직 목표가 없어서 열정이 잘 생기지 않고 그저 끈기로만 하는 일들이 꽤 많은데 이것들을 더 즐기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다.

Q.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A. 나는 아직 목표가 없는데 생긴다면 남에게 열정이라는 동기를 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_나의 관심분야를 파악하기 위한 생각을 항상 가지고 살기.
_항상 모든 면에서 나아지기 위한 노력을 해보기.

신뢰를 절대 깨뜨리지 않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_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 되자.
_술직, 담배, 진술하자.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닌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자.
_아침 5시에 일어나는 사람이 되자.
_주관이 생겨보자.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며 인생을 좀 더 즐기자.
_행복을 느끼기.
_긍정적인 생각 많이 하기.
_주변의 소중한 사람의 소중함을 잊지 말자.

기회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되자.
_도전을 두려워 하지 말자..

그동안 배운 가치를 토대로 트리미학교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그리고 또 3년 간 해보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트리미학교를 졸업할 때 어떤 모습이고 싶은지를 생각해보고 글로 정리해보자.

주도적인 삶
경쟁하지 않는 삶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함께 달려가는 삶
참여적인 삶
나를 끊임없이 성장하는 삶
타인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
예배하는 삶
성장하는 삶

잘 켜 재밌고 의미있는 창의 수업
선교활동
선교 외 섬김활동
야외 승마
캠핑과 캠프파이어
공동체 배낭여행(국토순례 X)
소풍

여유가 넘치는 사람이 되고싶다.
한번 쌓은 신뢰는 무너뜨리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남의 부족함을 너무나 진심으로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잘하는 한 가지가 있으면 좋겠다.
가치를 위해 나를 낮출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누군가를 온 맘 다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나름의 리스펙한 졸업생이고 싶다.

02 가치기초소양

가치기초소양은 드리미학교의 핵심 가치를 학습하는 수업이다. 드리미학교에는 학교 생활에서 하지 말아야 하는 5불용이 있다. 5불용은 도둑질, 성적 타락, 술 담배, 거짓말, 폭력이다. 가치기초소양에서 학생들은 5불용을 하지 않는 것을 넘어 다섯 가지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배운다.

다섯 가지의 가치는 정의, 성결, 절제, 정직, 평화이다.

성결한 자아

‘들어가는 말’

성결. 나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파고들어 본 키워드 중에 한 번도 스스로에게 언급하지 않은 단어였다. 이번 가치기초소양을 들으며 정의, 절제 그리고 성결에 대한 나름의 깊은 공부를 하며 나는 스스로에게 끊임없는 질문을 해볼 수 있었다. ‘나에게 성결이란 무엇인가.’ ‘나는 성결한가.’ ‘우리는, 그리고 나는 왜 성결하기 어려운가?’. 그렇다면 나의 삶에서 성결이 우선 필요한 곳은 어디이며 그곳이 더 성결해진다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가? 이 네 가지 질문은 이번에 내가 성결 수업을 들으며 나뉘보고 싶은 질문들이다. 난 이번 성결 수업을 들으며 정의, 절제보다 좀 더 묵직하고 어두운 울림이 왔다.

‘나에게 성결이란 무엇인가’

웨슬리는 성결을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쓰고 인간의 상대적 성결이라 읽는다. 하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쓰고 불가능이라 읽고 싶다. 제한성을 가지므로 짓지 ‘못하는’ 죄는 내가 성결해서 짓지 않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조완순 선교사님이 복음사경회 때 인간은 완벽한 상황만 갖추어진다면 죄를 짓는 죄인이라는 말에 나는 부정을 할 수 없었다. 물론 제한성 속에서도 죄를 짓는 자들은 있다. 대부분이 그러고 있다 나도 그렇고 내가 속한 이 공동체도 그렇고.. 애초에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간다는 제한이 있는 상황 속에서 인간은 죄를 짓고 있지 않은가. 그래도 이 세상에 성결이 존재한다. 내가 생각한 성결은 두 가지이다. 완전한 성결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성결이다. 완전한 성결은 정의 그대로 거룩하고 깨끗한 것이다. 제한성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사랑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나에게 불가능한 완전한 성결이라 생각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성결은 완전한 성결로 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이 노력을 풀이해 보자면 비방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 술, 담배를 하지 않음으로써 내 몸을 성결하게 유지하려는 노력, 혼전순결, 험담을 하지 않는 것,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지 않고 배푸는 것, 자신의 욕구만을 위한 사랑이 아닌 희생적인 사랑을 하는 것 등이 있다. 두 성결의 차이는 행동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으로부터 갈라진다.

‘나는 성결한가.’

왜 나한테 단순히 배움으로써 ‘얕’의 느낌이 아닌 묵직하고 어두운 울림이 왔을까? 그 답은 나의 내면에 있다. 나의 잘못된 점들과 부족한 면 그리고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왔고 살 것인지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성경에서 성결은 거룩하고 깨끗한 것이라고 말한다. 이 거룩하고 깨끗한 성결은 육체와 마음의 문제로 상실되기 쉽다. 나 또한 육체와 마음이 안정되어 있지 않다면 너무나 당연하게 죄를 짓는다. 왜 그럴까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 나의 본성이 궁금했다.

‘우리는, 그리고 나는 왜 성결하기 어려운가?’

성결에 대해 배울 때 빛음이라는 또 다른 수업에서는 나의 자아에 대해 알아가고, 방향성을 잡아보는 수업을 했다. 두 개의 수업을 병행하며 나는 성결한 자아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이 수업에서 읽게 된 두 가지 책 ‘복음 안에서 발견한 참된 자유’와 ‘톨스토이 인생론’은 나의 내면과 본성을 나보다 더 깊이 캐치해 알려주었다. 공허함, 고통, 분주함, 나약함 이 네 가지는 인간 자아의 본성이다. 이 네 가지로부터 나는 불안해지고 죄를 지으며 성결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된다. 이것으로부터의 해방은 사람들로부터 평결을 얻어 최고가 되고자 달려가는 것이 아닌 참된 복음적 겸손과 자기를 의식하지 않는 자유로부터 나온다. 겸손 자체도 행하기 어려운데 ‘참된 복음적 겸손’은 참 가지기 어려운 가치이다. 단순히 겸손함으로써 얻는 이득과 사회적 행동으로써 나를 위해 취하는 행동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 행하는 겸손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의 삶’에서 성결이 우선 필요한 곳은 어디이며 그곳이 더 성결해진다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가?

나에게는 생각으로부터의 성결이 가장 필요하다. 행동은 단순히 성결하고자 하는 목표나 마음이 없어도 명예, 권력, 사심과 같은 다양한 것들로 충분히 행할 수 있다. 나 또한 그러하다.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대부분이 성결하지 못한 생각의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 그렇기에 기준이 필요하다. 나에게 작용하는 기준 중 가장 많은 기준을 차지하는 것은 나의 주변 사람들이다. 남들 하는 만큼 이라는 기준이 내 인생에서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하지만 나는 요즘 나와와의 싸움을 하려 노력하고 있다. 남과의 비교가 아닌 과거의 나와 비교하며 더 나은 선택과 행동을 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방향성이 지속된다면 나는 좀 더 나로서 행복해지고 후회가 없어질 것 같다.

‘성결의 방향성’

성결은 선순환을 만들어 낼 수 있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사회는 남용하며 기회로 삼아 자신의 행복과 이득을 위해 취해버리는 경우가 있다. 나는 우리 모두가 성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회를 꿈꾸어 보았다. 먼저 나태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행동은 곧 누군가에게 동기를 주고받으며 끊임없는 발전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발전한 사회는 의로운 사람이 영향력을 끼치는 환경 속에서 불필요한 악순환은 줄어지고 서로를 사랑하고 돕는 선순환이 일어날 것이다. 이러한 선순환은 곧 행복을 추구하지 않아도 얻게 되는, 행복을 소유하는 사회가 아닌 나누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본다.

‘성결 수업을 마무리하며’

우리는 아동학대, 성장 중심의 사회, 님비현상, 동성애, 악플 등 뿌리로 파고 들어가보면 지독히 개인주의적인 사상이 밑바탕 되는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 사회가 세팅한 여러 사상 속에서 소비자가 되어가며 흘러가듯 사는 것이 맞는 것일까?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할까? 예로 재활용 쓰레기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다. 환경문제로 인해 다양한 재활용 시스템이 나오고 있다. 누군가 지구를 지키기 위해 개발해 낸 이 재활용 시스템은 소비자가 재활용을 잘 해야만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길거리 쓰레기들을 보면 일회용 플라스틱 컵이 바닥에 굴러다니고 기름기가 그대로 있는 과자봉지가 일반쓰레기에 들어가 있는 상황을 꽤나 자주 볼 수 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나 또한 과자봉지를 씻어서 비닐류에 재활용을 해본 경험이 얼마 없다. 이것이 사회의 환경 탓일까? 아니다 우리는 의무적인 교육을 전부 받아보지 않았다. 그럼 도대체 어디서부터 바로잡아야 할까.. 이것이 상황을 예로 한 엉망진창 성결하지 못한 외부적인 행위였다. 이러한 상황을 나의 내면에 적용해 보자. 어디서부터 바로잡아야 할지 손도 대지 못하는 지경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소비하는 쓰레기들을 하루에 딱 세 번씩 재활용 규칙을 지키는 습관부터 들여보자. 그렇게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수거하다 보면 어느새 성결과 가까워져 있는 자아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영향은 나에게만 적용되지 않는다. 같이 과자를 먹은 친구가 갑자기 과자봉지를 재활용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아마 같이 과자봉지를 씻고 재활용을 할 것이다. 성결 또한 이러한 영향력을 행할 수 있다. 이러한 행동 하나하나가 바로 선순환의 씨앗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을 잃지 말고 성결한 자아를 위해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보자.

“도덕과 정의의 가치”

정의란 무엇일까?

정의에 대한 정의를 할 때 자신의 도덕 단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없게 점점 더 애매한 경계에 있다. 단순히 공동선이라 하기엔 너무 세상적인 가치기준을 가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성경에 나와있는 정의란 ‘사랑으로 약자를 돌보는 것’이다. 세상적인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섬김보다 성공하는 삶을 꿈꾸며 성공과 행복하기 위해 살 것이다. 나 또한 과거부터 지금까지 나의 이득과 행복을 위해 살아왔다. 하지만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기독교인 되는 사람으로써 옳은 행동이며 행복할 수 있을까? 반대로 성경의 정의를 행하며 살면 행복할 수 있을까? 내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과 가치는 무엇일까?.

내가 첫번째 가치기초소양을 들으며 생각해본 ‘정의란 무엇인가’에 샌델의 세가지 정의 개념과 동성애라는 키워드를 통해 ‘사회 안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맥락을 파악하고 그 속에서 선한 행동을 하는 것 그리고 세상의 윤리와 하나님의 말씀이 인정하는 행동이 정의인 것 같다.’ 라는 결론을 내렸었다. 한마디로 공동선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적당한 타협을 보겠다는 말을 하고 있고 지금도 나는 정의에 대한 나의 생각 자체는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 타협점을 점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잡으며 궁극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목표이다. 그러기 위해선 성경 속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남을 섬기는 법을 배우는 것과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우리는 왜 성경적 정의를 행해야 할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인격적 존재로 만드셨다, 즉 자신의 행위에 책임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도덕성이 주어졌다는 말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사람으로써 정의와 도덕성을 키우는 것이 마땅한 도리가 아닐까 생각한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곧 옳은 일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것이 곧 인생의 가치와 직결된다고 생각한다. 트리미학교가 추구하는 성공보다 섬기는 삶 또한 ‘남을 사랑으로 섬기며 정의를 행하는 삶’ 이라 해석 할 수 있을 것 같다. 가치기초소양 때 배운 회년에서도 섬김을 추구하는 구절을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회년이란 성경에 나오는 규정으로 안식년이 일곱 번 지난 50년마다 돌아오는 해이다. 나는 이 회년을 배우며 평화와 정의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느꼈다. 여기서 우리는 정의란 평화와도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우리의 사회에서도 회년에서 나온 제도인 토지 공개념이 있다. 토지 공개념은 레위기에서 근거한 법안으로 토지의 개인적 소유권은 인정하되, 이용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자는 것으로 토지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다는 개념이다. 이러한 사례는 정의로운 사회로 한 발짝 도약하는 예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정의롭지 못한 문제점 또한 많이 있다.

정의롭지 못한 현재 우리의 사회는 어떤 모습과 문제점을 보이고 있을까.

나는 가장 먼저 역차별이라는 문제점이 생각났다. 성경에서 동성애는 금지 되어 있다. 창세기 1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는 성적 타락과 문란한 문화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다는 내용이 있다. 애초에 동성애와 성적 타락은 하나님이 우리를 설계하신 ‘성’ 의 목적이 아니다. 하지만 사회는 점점 성소수자들을 존중하며 오히려 성소수자들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기독교인들에게 화살을 돌리고 있는 추세를 띄고 있다. 한 기사를 보면 캘리포니아 주 공립학교에서는 아이들이 만 7세가 되면 동성결혼에 대해 배우며 만 9세가 되면 동성애자 권익 보호 운동을 펼친 동성애자들, 이른바 성소수자 인권 운동가들을 ‘위인’ 으로 배

우게 되어 있다. 첫 번째 수업인 도덕질과 정의란 무엇인가 과제를 하기 위해 우연히 접하게 된 기사였지만 충격 그 자체로 다가왔었다. 그 교육을 받은 아이들에게는 성소수자들이 위인이며 정의로운 사람들이라는 가치가 정립되었을 것이다. 이 외에도 아이들이 SNS와 인터넷을 통해 잘못 접하고 있는 성에 관련된 다양한 지식들을 보며 큰 문제점이라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롭지 못한 사회 문화는 결코 가볍거나 단순한 문제가 아님을 우리 모두가 인지하며 해결방안을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나는 그 해결방안중 하나로 도덕적 가치기준을 확립하며 스스로의 가치에 대한 신념의 필요성을 느꼈다. 잘못된 문화를 접한다고 곧이 곧대로 받아드려 나의 생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닌, 나에게 이러한 문화기준은 옳고, 또 맞는 것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게 하는 것이다. 물론 쉽지 않겠지만 앞으로의 교육에 단순히 공동선을 추구하는 도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닌 자신의 내면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차원 높은 도덕수업을 접할 수 있다면 보다 정의로운 사회가 나올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나는 콜버그의 도덕발달 이론 수업을 들으며 내 도덕적 가치 기준을 정립 할 수 있었다. 평소 나는 도덕이라는 키워드와 크게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 생각했었는데 생각보다 공동체 생활 속 많은 부분을 결정하는 것이 내 도덕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단순히 내 도덕성이 현재 3단계다 라고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나는 3단계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럴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3단계까지가 도덕성의 전부면 3단계의 양면성중 단점이 너무 크다고 생각한다. 애초에 도덕이라 하기에 애매하다. 콜버그의 도덕 발달 이론에서 3단계는 개인간의 기대, 관계, 동조의 관계 즉 자신의 평판과 시선을 고려해 행하는 도덕성인 것이다. 내가 진짜 그정도 수준의 사람인것이 아니라 남의 시선과 평판 하나로 인해 그런 척을 하는 것이 문제이다. 내면의 도덕성과 행하는 정의가 다르다면 그 사람은 정의가 아닌 위선, 가식에 그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인것이다. 지금도 나는 이 에세이를 쓰며 내 도덕기준이 3단계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음을 느끼고 있다. 드리미학교의 모든 활동을 수행하고

과제를 제출하거나 내 의견을 말할 때, 소감을 말할 때, 심지어는 질문을 하는 순간 또한 나는 진솔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저 내 내면이 채워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어떤 말을 할 때 남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높은 수준의 사람으로 봐줄까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다. 과연 그게 깊이있고 값지며 의미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일까. 물론 그렇게 해도 남는 것이 있고 그것이 꼭 나쁘다고만 생각하진 않는다. 그래도 나는 조금 더 진정성 있는 내면과 도덕성을 갖추기 위해 내면과 외면을 하나하나 맞춰가며 발전을 해보려 한다.

사회적 정의와 성경적 정의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이 둘이 차이가 있고, 성경적 정의는 이렇다 사회적 정의는 또 이렇다 하며 구분지을 수 없지만 주관적으로 약간의 차이를 두었다. 사회적 정의는 한마디로 정의를 행하는 행동을 사회생활중 일부로 인식하며 행동한다. 그렇다면 그게 과연 정의의 도덕성에 걸맞는 가치일까? 내가 생각하는 사회에서의 정의는 공의와 별 차이가 없다. 공동의 선 속에서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경적 가치기준에서 말하는 정의는 공의와 차별화 되어 있다. 성경에서의 정의는 가난한 자들에게 사랑으로 베푸는 행위를 정의라고 하는데 이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공정한가와 이로운가로 따져 행할 수 없는 행동이다. 상대방을 사랑하는 건 결코 쉽게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다. 사랑으로 인해 베푸는 행위 또한 굉장히 어렵다. 그렇기에 성경이라는 해답책과 기준이 필요하다.

가치기초소양을 들으며 나는 정의와 많은 연관이 있는 도덕성을 키우는 것이 가장 먼저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의 도덕성 단계보다 높은 정의를 보여주는 것은 위선에 그치지만 도전하는 것은 발전이다. 예로 내가 싫어하고 품을 수 없는 유형의 사람이 있을 경우 그 유형을 단순히 나 편하자고 성숙한 척 품어준다면 그냥 내가 인내한 만큼 피해를 줄이고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다르게 생각해서 나와 맞춰가고 이해를 한다는 생각으로 품어본다면 그것이 곧 도전이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나는 앞으로 많은 영역에서 도전을 해보려 한다. 인간관계, 나의 내면, 신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스스로의 가치를 키워나가고 싶다.

나는 평화하면 자유의 여신상이 떠오른다.

우리는 뉴욕 하면 가장 먼저 자유의 여신상을 떠올리곤 한다. 자유의 여신상의 뜻은 자유, 평화, 인권, 노예제 폐지, 민주주의, 기회 등이 있는데 이 상징들의 공통점은 모두 비폭력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평화를 추구하고 간절히 원하며 사랑하지만 왜 작은 관계 하나에서조차 평화가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

.
. .
.

‘나에게 평화란’

내가 정의해 본 평화는 무지개 같은 것이다. 무지개는 서로의 색을 이해하며 자신만을 뽐내려 하지 않고 일곱 가지 색 모두가 조화를 이뤄 가장 완전한 상태를 만들어 낸다. 이 일곱 가지 색은 용서와 화해, 평등과 자유, 배려와 오래참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을 나타낸다.

‘용서와 화해’

그리스도교적인 평화주의 사상이 데스몬드 투투는 <용서없이 미래없다>에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는 너그러움을 뜻하는 우분투라는 전통을 설명한다. 이 전통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인종차별로 인한 갈등을 해소함으로써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평화가 정착되게 하였다. 여기서 우분투를 통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차별이 법으로는 종식된 이후 진행된 과거사 청산이 인종차별 시대 당시 백인정권에 의해 자행된 반인권적인 폭력의 가해자들이 죄를 고백하면 사법적인 면책을 허용하는 정직과 용서 위주로 진행되었다. 이것은 평화의 속성 중 적극적 평화의 적합한 사례이다.

‘배려와 오래참음’

사회적 동물인 우리에게 배려는 너무나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하지만 오래참음은 참 애매한 경계에 있는 것 같다. 단순히 배려라 해서 그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 뜻하는 오래참음의 요소가 들어 있는지 잘 돌아볼 필요가 있다.

‘평등과 자유’.

자유와 여신상은 인권, 노예제 폐지, 민주주의는 평등을 말하고 있음과 동시에 자유를 외치고 있다. 평등과 자유는 서로 양립할 수 있지만 자유보다 평등을 앞세우는 사회는 평등과 자유, 어느 쪽도 얻지 못한다. 평등을 얻기 위해 사용하는 힘이 자유를 파괴하는 힘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와 평등을 동등 가치로 보고 두 가치중 어느 한쪽에만 치우쳐 바라보면 안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 그렇게 얻은 자유는 우리의 인격체에게 최선의 환경을 제공한다.

‘사람’

평화는 폭력이 없는 상태가 기본 조건으로 인류가 추구하는 가장 완전한 상태를 이르는데 우리가 흔히 쓰는 ‘평화롭다’라는 말 또한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정신적, 육체적 폭력이 없는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쓰곤 한다. 우리는 평화로운 상태가 지속되길 원하고 평화로운 상태에서 많은 행복감을 느낀다. 특히나 관계에서 오는 평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며, 그 안정감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또한 없을 것이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대부분 ‘관계’에서 시작된다는 심리치료가 아德勒의 말 또한 정말 많은 공감을 받고 있지 않은가. 나는 관계에서 오는 평화에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핵심은 사람이라 생각한다. 우리 모두 현재의 관계를 떠올려보자. 우리는 모두 소중한 존재며 고유하다는 자아 속에서 사랑받기 원하는 본성이 자리 잡아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욕망하는 사람이 없는 관계는 지속 가능하며 건강하고 행복할까?

“

사람 ‘없는’ 관계.. 한 명씩은 주변 사람들 중에서 존재했었던 혹은 존재하고 있는 관계라고 생각한다.

나는 이 관계에서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서로를 신뢰하지 못해 마음을 나누지 못하고 오해는 쌓여만 가는 관계였다. 이런 관계는 필연적으로도 지속하기 어려운 관계다. 반대로 사람이 존재하는 관계는 인생의 의미를 준다. 행복을 주고 위로와 동기를 주고받으며 함께 성장하고 같이 있음으로 평화롭다는 심리적 안정을 주기도 한다. 대부분의 우리는 사람이 존재하는 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렇게 인생을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개척해 나간다. 특히 가깝고 밀접한 관계로 들어갈수록 평화에 대한 많은 영향력을 주게 된다.

일시적인 것에만 애착을 갖고 영원한 기쁨이 있는 곳으로 서둘러 가지 않는 것도 헛되도다.

‘그리스도를 본받아(토마스 아퀴나스) 중에서’

내 삶에서 절제가 필요한 부분

말

밥

잠

폰

돈

빛음 활동 중 절제하고 균형 잡힌 삶에 도움이 된 활동

정의-남을 사랑하여 베풀 수 있는 것이다.

사랑-진정한 사랑은 희생과 책임감이 아주 많이 동반된다.

시간 초월성-끊임없이 비전을 구체화 시키며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 한다.

신앙-나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셔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옳은 길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

공동체-나를 낮추고 남을 수용하는 태도와 마인드, 사회생활, 공동체 생활, 타인을 이해, 내가 절제해야 하는 이유와 방법, 남을 배려해야 하는 이유와 방법을 다양한 상황과 감정들을 통해 점진적으로 배워나간다.

절제하는 삶을 위한 원칙

차원 높은 만족을 추구한다.

위기의 순간 한발짝 떨어져 본다.

전달력과 의미가 있는 발언인지 고민한다.

분수를 알고 그에 맞게 행동한다.

심판의 순간이 온다는 것을 인지한다.

03

3P 기초소양

3P기초소양은 학생들이 해보지 않은 활동을 도전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수업이다. 따라서 훌륭한 결과를 제작하기보다 새로운 것을 마음껏 시도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하여 학생들은 3P활동을 폭넓게 시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경험한다. 또한 실패할 수도 있는 도전을 해봄으로써 새로운 것을 탐색하는 연습을 한다.

3P 창의활동 계획서

pain d'amour(사랑으로 빛은 빵)

개요

본 활동은 빵의 기본기를 익히고 자격증 취득을 하는 것을 가장 기본적인 목표로 둔다. 전문성을 갖춰 영향력 원 안으로 들어오면 아이들에게 직접 사람의 빵을 전달하며 직접 섬겨본다. 빵의 기본기를 가지는 기준은 일본 명문 제과 학교인 츠지제과전문학교 교수가 소개하는 보다 제대로 된, 맛있는 빵을 만들기 위한 제빵 기본서 기초부터 이해하는 제빵 기술을 통해 밀가루,보리,옥수수,호밀,혼합빵과 두 가지의 재료 배합법에 대한 이해도에 따라 평가한다. 이 활동의 가치 목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빵에 대한 열정과 책임이 생겼는가와 둘째, 빈민가 아이들의 삶을 이해해 보며 직접 그 아이들을 생각하여 빵을 만들어 전달하는 경험에서 얻는 값진 가치이다. 빵을 만드는 기준은 네가지로 첫째, '포만감을 주는가', 둘째, '보관이 용이한가' 셋째, '건강한가' 넷째, '행복을 주는 맛인가' 이다. 모든 기준을 만족시키면 더 나아가 드리미학교의 이니셜을 담아 디테일과 의미까지 충족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활동명은 'pain d'amour(사랑의 빵)' 으로 빈민가의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는 아이들에게 행복이라는 키워드를 전해주는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 다양한 방법중 빵을 통한 전달을 선택한 이유는 평소 제과제빵에 관심이 있고 직접 만든 빵을 먹는 아이들을 보며 뿌듯함을 느끼는 성취감과 아이들에게 먹는 행복,건강하고 맛있는 빵,기분 좋은 포만감을 주고 싶기 때문에 선택하였다.

의미 있는

/빈민가 아이들

/섬길 의지가 있는 드리미 학생

청중

/제빵에 달란트를 가진 학생

자료

기초부터 이해하는 제빵 기술

내
용

및

활
동

_배합법

베이커퍼센트의 기본 통해 빵의 배합법과 비율을 배우는 것을 기본이론으로 잡는다.

-미국식 배합법과 프랑스식 배합법

_자격증 취득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필요한 통밀빵,그리시니빵,옥수수식빵과 같은 외 17가지의 빵을 직접 만들어보며 기본실습을 진행해본다.

종류: 제빵기능사

발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_기본기를 익힌 빵

기본실습을 한 뒤 심화과정으로 발아 통 곡물 빵, 사워도우 빵, 통밀 빵, 귀리 빵, 아마 빵, 발아 호밀 빵, 글루텐 프리 빵 이렇게 7가지 종류의 빵을 통해 건강한 빵의 실습을 진행한다.

_빵 반죽 방법 심화(손반죽,기계반죽등)

기초부터 이해하는 제빵 기술을

통해 빵 반죽에 대한 이론을 배운다,

_신경쓸 point

식감의 다양성

끼니 대처

용이한 보관

맛

드리미학교 담아보기

_후원 방법

한국 국제연합 봉사단에서 기획한 푸드뱅크 사업 '행복 가득 빵 나눔'을 통해 간접적인 기부와 찾아가 전달하는 직접적인 기부 방식을 통해 빈민가 아이들 및 독거노인 분들께 건강한 빵을 후원하는 경험을 한다..

_대상 선정

제빵에 관심이 있는 가

아이들을 섬기고 싶은 마음과 금홀함이 있는 가

각 빵의 이점들 및 선정이유

발아 통 곡물빵-발아된 곡물은 다른 곡물만큼 혈당을 증가시키지 않으므로 당뇨병이나 혈당 조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좋은 선택이다. 게다가 대부분의 발아 빵은 섬유질과 단백질이 풍부하며, 정제된 빵보다 더 포만감을 준다.

사워 도우빵-사워 도우는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프리바이오틱스 로 인해 다른 빵보다 소화가 더 쉬운 경향이 있다.

통밀 빵-통밀을 포함한 통 가공된 정제 곡물보다 영양가가 높은 편이다.

귀리 빵-베타 글루칸으로 알려진 귀리의 섬유질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당을 조절하며 고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아마 빵-주로 통 곡물 가루와 아마씨로 만든 아마 빵은 먹을 수 있는 가장 건강한 빵 중 하나일 것이다. 아마씨는 영양가가 높고 여러 가지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하기 때문인데, 특히 아마씨는 식물성 식품에서 발견되는 오메가-3 지방산 인 알파-리놀렌산(ALA)의 훌륭한 공급원이다.

발아 호밀 빵-밀과 비교할 때 호밀은 종종 더 영양가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실제로 호밀 빵은 밀빵보다 포만감을 높이고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

글루텐 프리 빵-글루텐이 없는 빵은 밀, 호밀 또는 보리와 같은 글루텐이 없는 곡물로 만들어진다. 셀리악병이나 글루텐에 민감한 환자와 같이 글루텐을 피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안전한 옵션이 될 수 있다. 글루텐이 없는 빵의 정확한 성분은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현미, 아몬드, 코코넛, 타피오카, 감자 또는 옥수수 가루와 같은 글루텐이 없는 곡물 가루를 혼합하여 만든다.

급식실 가방 보관함 설치

문제
개요

급식실 앞과 급식 상에 맥북과 가방이 급식실 내, 외부에 무분별하게 놓여 있다.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 1) 급식실의 분위기가 어수선히짐
- 2) 음식을 섭취하는 장소가 비위생적인 장소로 인식됨
- 3) 먼지가 급식실 내부로 들어옴

의미
있는

가방을 어디에 뒤탈지 모르는 학생, 가방이 굴러다님으로 맥북이 파손된 학생, 먼지가 있는 음식을 먹어야만 하는 학생과 선생님, 어수선했던 환경을 보는 모두, 학교에 방문하시는 외부손님, 드리미학교를 구성하는 모든 공동체 일원

청
중

정
보
와
지
식

급식실 의자는 모퉁이가 둥글어서 가방을 걸어두면 흘러내림

=즉 의자에 가방을 걸어둘 수 없음

급식실 바닥에 가방을 두게되면 오가는 길에 걸려 넘어질 수 있음

또한 의자와 의자 간의 간격이 좁아 현실적으로 바닥에 두는 것은 불가능함

학생들 가방의 평균 크기와 무게를 알아야 함

백팩 평균 크기: 세로 50cm 가로 35cm

락커 한 칸 예상 크기: 세로 60 가로 40X20

해결 방법

급식실 외부에 가방보관함을 설치함

- 칸이 없는 가방보관함을 설치한다면 분실물함이나 잡동사니함이 될 수 있음
- 그러므로 칸이 나뉜 가방보관함을 설치
- 본질적인 목표는 미와 안전이므로 여닫이가 있는 것으로 선정
- 관리자

액션 플랜

1. 급식실 외부에 있는 빈 공간의 길이와 넓이를 측정
2. 가장 최적화된 가방보관함을 주문
3. 가방보관함을 설치 이후 학생들에게 공지를 통하여 알림
4. 학생들에게 알리는 과정에서 책임감에 대하여 이야기함.
 - 분실물센터나 잡동사니 보관함이 되지 않도록 강조
 - 두고 가는 물건의 대처는 폐기처분임을 예고
5. 가방보관함 관리자를 선정
6. 관리자는 매일 저녁식사 이후 청결의 상태를 점검
 - 밤까지 가져가지 않은 것들은 모두 폐기처분

역할 분담

1. 가방보관함 관리자
 - 매일 저녁식사 이후 식당 일정이 없을 때 가방보관함을 점검
 - 늘어져있는 물건들을 폐기처분
 - 어셈블리에 공지
2. 가방보관함 주문자
 - 급식실 앞 공간의 넓이를 측정
 - 그에 맞는 가방보관함을 주문
3. 정보원
 - 설문을 통하여 학생의 가방 길이나 가방의 정리
 - 가방보관함 설치 이후에도 만족도나 청결도 등을 설문
 - 가방보관함의 유지에 힘쓰는 역할
4. 책임있는 학생
 - 가장 핵심이 되는 역할
 - 학생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가방보관함의 질을 결정함

cafe aunae 카페 아우내

인터뷰

Q.카페가 레드오션인 와중 카페를 창업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A.아무래도 다른 업종에 비해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창업을 결정하게 되었다.

Q.브랜드 카페가 아닌 개인 카페로 결정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A.꽤 많은 고민 끝에 개인카페로 결정하게 됐다. 계기는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하고 싶은 메뉴나 인테리어의 제한 때문에 개인카페로 결정하게 되었다.

Q.카페창업을 준비하며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있으셨나요?

A.카페 일은 해본적이 없어서 뭐 하나 쉬운게 없었다. 메뉴개발부터 인테리어, 가격 선정 하나하나 직접 해야되는 부분이 어려웠다.

Q.그런 힘든 순간에 도움이 된 분이 계셨나요?

A.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주변 지인들을 통해 조언도 얻고 부모님께서 금전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주셔서 오픈준비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Q.어떠한 카페를 바라보며 창업을 준비하셨나요? 가격이나,인테리어 등 나는 ~한 카페를 만들고싶다!

A.남들처럼 커피 전문점이 되겠다 또는 디저트 전문점이 되겠다 를 바라보고 창업을 하진 않았다. 처음에는 그저 할게 없어서 카페를 하게 되었다. 하지만 하다보니 욕심이 생겨 커피도 더 공부하고 있다. 주변이 시골이다 보니 커피를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 없어 이 카페가 좀 더 커피에 전문적인 카페로 성장해보고싶다.

Q.오픈을 하기 까지 어느정도의 시간을 투자하셨나요?

A.제대로 시작한 것은 1-2달이다. 도움을 많이 받아 다른 주변 지인에 비해 굉장히 빨리 오픈하게 되었다.

Q.막상 카페를 열고 보니 생각했던 것과 달랐던 부분이 있으셨나요?

A.카페하기 전에는 꽤 여러군데의 카페를 다녀봤다. 카페를 보며 되게 편해보인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며 줄곧 자기만의 카페를 가지고 싶었다. 하지만 직접 해보니가 하나 하나 직접 신경 쓸 일이 많았다. 생각했던 것과 비슷했던 부분 (마진이 크다)도 있었지만 자잘자잘하게 할 일이 생각보다 많았다는 점이다. 또 시간이 생각보다 없다.

Q.카페에서 손님들이 없는 한가한 시간대에는 시간사용을 어떻게 하시나요?

A.디저트 개발을 해보기도 하고 거창한건 아니지만 메뉴개발도 하고 에이드 청도 담구는 일을 한다. 피크타임이 딱 오면 설거지와 다양한 일을 처리한다.

Q.카페를 운영 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A.딱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없지만 손님이나 지인들이 커피 맛있게 잘 먹었다. 맛있다고 해주면 기분이 좋고 기억에 남는다.

Q. 어떤 사람에게 카페창업을 추천하시고 싶으신가요

- A. 젊을 때, 경제적 여유가 있을 때
 Q.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A. 확실한 목표의식, 같은 업종, 일머리
 Q. 특별히 카페이름인 아우내에 의미가 있을까요?
 A. 제일 큰 목적은 네이머에 썼을 때 나오지 않는 카페 이름 그리고 각인시키기 쉬운 이름

Q. 카페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한마디

A. 저는 카페 일을 해보지를 않아서 카페관련 일을 안해보고 창업을 하게됐는데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하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또 창업이 목적이라면 이 카페 저 카페에서 일을 해보고 결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알아보는 거랑은 실전은 좀 다를수도 있으니까..저 또한 카페 창업을 하며 경제적으로도 (자리)세 나가고 인건비 나가면 남는 것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또 레드오션인 만큼 카페를 창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저도 카페를 창업할 때 주변 카페하는 지인들한테 '아 카페 좀 힘들 것 같은데' 라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주변에서 카페한다는 사람 있으면 말리진 않을 것 같아요. 제 성격은 부끄럼 없고 꺼져봐야 느끼는 성격인데 경험상 나쁜 점도 있지만 좋은 점 또한 있기에 한번정도 해보시는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대신 꼭 한번 카페 관련 일을 해보시고 창업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알게 된 지식과 정보

카페를 창업하기 전 카페관련 일을 꼭 경험해보자.
 카페를 창업했을 때 생각보다 한가한 시간이 없다.
 마진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남는 편이다.

피드백

대화에 좀 더 여유를 가지기
 질문 구체화

나는 배웠다

나는 배웠다.

나는 아직 부족하다는 것을
하지만 성장의 기회는 언제든 있다는 것을

그래서 나는 배웠다

생각의 유연성이 필요한 이유를
타인을 존경하는 법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33〉